

## 이재용, 경영진 등 일반면회 가능

(삼성전자 부회장)

# 三電, 글로벌 투자·M&A 탄력 기대

4주 격리 마치고 일반 수용실 이동  
美 반도체 공장 등 투자 결정 기대  
11조 달하는 상속세 해결도 시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격리를 마치면서 옥중 경영도 가능해졌다.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지 여부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이동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를 마치고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7일부터 일반 면회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주요 경영진과도 만날 수 있게 된 것.

세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비로소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과 대규모 M&A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회장 수감 이후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추가 투자 결정이 절실했던 상황, 이 부회장이 최종 승인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이유다.

당장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현지 지역 정부와 감세 등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빅딜’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현금은 1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전장 반도체 부족난이 심화되는 상황, 네덜란드 NXP와 독일 인피니언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반도체 생산 기지 구축 프로젝트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20%를 유럽에서 생산한다는 계획, 500억유로(한화 약 67조원)를 들여 삼성전자와 TSMC에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 삼성’ 작업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사내 경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뿐 아니라, 준법감시위원회와 노조,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한 내용도 주요 사안이다.

이 부회장 개인적으로는 상속세 문제도 시급하다.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1조원 가량, 오는 4월까지 납부를 완료하거나 연부연납을 결정해야 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SKT, SC제일은행과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구축

7월말 서비스 오픈 예정

지난해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개인이 흩어진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구축에 나선다.

SK텔레콤은 SC제일은행과 협력해 제1 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구축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이달 초 마이데이터 전용 클라우드 구축사업 계약을 맺었으며, SC제일은행 클라우드 내 마이데이터, 개

인자산관리 데이터, 솔루션 분석결과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SKT는 클라우드 컨설팅 파트너인 ‘베스핀글로벌’과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의 협업을 통해 MS ‘애저’에 해당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오는 7월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

SKT는 SC제일은행이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와 ‘마이데이터 분석시스템’, ‘마이데이터 API

데이터 레이크’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SC제일은행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바일 뱅킹을 업그레이드(10월말 오픈)해 제공해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신용관리·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KT는 이번 제1금융권 대상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구축사업을 계기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삼성전자, 내달 17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온라인 중계 첫 도입... 실시간 시청

삼성전자가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확정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긴 하지만, 현장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3월 17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주총을 온라인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지난해와 같이 현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전자투표 제도도 이어간다.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에는 3월 7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 참여방법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 정보를 등록하고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내역 등을 확인, 의안별로 ‘투표 행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온라인 중계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별도 사이트를 통해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주총을 시청 가능하다. 안건별 질문도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주총 주요 안건은 특별배당금 10조7000억원을 더한 제52기 재무제표 승인과 김현석·고동진 사내이사 및 박병국·김종훈 사외이사 재선임 등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선욱 사외이사 재선임도 별도로 진행한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도 이어진다.

/김재용 기자

볼보

## B6 라인업 예약판매

볼보가 새로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국내에 내놓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B6 라인업을 공개하고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모델은 XC90과 S90, 크로스컨트리 V90과 XC60 등 4종이다.

B6 엔진은 T6 엔진을 대체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다. 회생제동 등으로 에너지를 회수해 힘을 보태며, 민첩함까지 겸비해 가속성능도 높였다.

최고출력은 300마력에 최대토크는 42.8kg·m이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 장착하고 HUD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도 함께 제공한다. 전 모델에 인텔리 세이프도 기본 적용된다. /김재용 기자

## 오너 부재... 코로나 고려 조용히 맞는 33번째 생일

아시아나 항공 창립 33주년

박삼구 회장 이후 오너 공석  
별도의 행사 일정 없어

아시아나항공이 33주년을 맞았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대한항공과 통폐합되고 오너가 부재하는 등의 이유로 조용한 창립기념일이 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7일 아시아나항공은 창립 33주년을 맞는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2월 창립했으며 같은 해 12월 B737-400 항공기를 처음 도입해 운항을 본격화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하며 제2국적사이자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33주년에 이르러 오너도 부재한 채 창립기념일을 맞게 됐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2019년 3월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회장은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회사채 상장폐지 등의 부도 위기에 몰린 바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201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을 위해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지난해 9월 인수계약이 무산됐다. 또,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간 아시아나항공은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한항공과의 통폐합을 공식화하고 현재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과 30여 년간 양대 국적사로서 경쟁해 온 아시아나항공이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달 14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경쟁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당국 등 9개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터키 경쟁 당국(TCA)에서 지난 4일 처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8개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임의적 신고 대상 국가인 영국, 호주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 제출도 준비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이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배경에는 박 전 회장의 과도한 사업 확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박 전 회장은 2006년과 2008년 각각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잇따라 무리하게 인수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유동성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를 벗어난 2014년 이후 또다시 약 6년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에 놓이게 됐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은 계속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며 불안정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영업손실 2920억원을 냈지만, 2, 3분기에는 화물 부문의 호조세로 각각 영업이익 234억원, 134억원을 기록했다. 또, 이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간 별도 기준 영업손실 7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등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33주년 창립기념일에 별도의 행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LG전자,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에어컨 출시

전기식·가스식 장점 합쳐 비용 절감

냉난방도 하이브리드 시대가 온다. LG전자는 16일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한다.

히트펌프 에어컨은 전기식과 가스식 장점을 합쳐 냉난방 비용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멀티브이와 가스식 시스템 에어컨을 배관 하나에 연결하고 제어를 한대로 통합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건물의 전기 기본 요금을 낮춰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건물은 연간 소비전력량 최대치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해 봄과 가을에도 높은 전기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히트펌프 에어컨은 최대치를 줄여 기본 요금을 줄여주고 변압기를 설치하는 수전 공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모드는 4가지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예측해 저렴한 방식을 선택하는 ‘비



LG전자 직원들이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휴게소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 /LG전자

용 최적화 모드’와 냉방은 가스, 난방은 전기식으로 우선 가동하는 ‘자동 모드’, 피크 전력을 줄여주는 ‘GHP 우선 모드’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멀티브이 우선 모드’ 등이다.

LG전자 시뮬레이션 결과 1000㎡ 규모 사무용 건물 기준 147kW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비용은 동급 전기식보다 25% 적었다. 특히 전기 기본 요금을 54% 줄이는데 성공했다.

/김재용 기자